

# 우크라이나 “러, 대반격 늦추려 소규모 댐 추가 파괴”

### 우크라이나군 대변인 “도네츠크주 ‘모크리 알리’ 강 댐 폭파” 자포리자·도네츠크주 반격...인근 마을 탈환 성과 주장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늦추기 위해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에 이어 도네츠크주의 또 다른 소규모 댐을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대반격 작전이 이뤄지는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대변인 발레리 세르센은 이날 자국 언론에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서부 ‘모크리 알리’ 강 상류의 댐이 러시아군에 의해 폭파돼 강 양안에 홍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모크리 알리 강 주변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다.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모크리 알리 강 중상

류의 클류초베 지역에 있다.

세르센 대변인은 “러시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늦추는 것이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모크리 알리 강 댐 파괴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도 이 댐 파손과 관련한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우크라이나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드니프로강 하류 지대인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이 침수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재앙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저지하기 위해 댐을 폭파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



자원봉사자들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파괴로 침수된 남부 미콜라이우주(州) 아파나시우카 마을에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 6일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이 무너지면서 드니프로강 하류 마을 일대가 홍수에 잠겼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댐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콜라이우우크라이나EPA=연합뉴스

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댐이 무너졌다 카호우카 댐 폭파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을 개시한 시점에 일어났다. 러시아군에 점령된 영토 탈환을 위한 다.

우크라이나군은 댐 파괴로 헤르손 방면으로의 진격이 어려워졌으나 더 동쪽의 자포리자주와 도네츠크주 방면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특히 도네츠크주 서부 벨리카 노보실카에서 모크리 알리 강 양안을 따라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인근 마을들을 탈환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강 동안의 블라호다트네, 서안의 네스쿠치네, 마카리우카, 스토로제베 등의 마을들이 수복됐다.

한나 말라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12일 저녁 더 서쪽에 있는 노보다리우카, 레바드네, 로보코베 등 세 곳의 다른 마을들도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됐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지역 반격 작전 실패로 전차와 장갑차 등이 파괴된 모습이 동영상에 유포된 뒤 압박을 받으면서, 모크리 알리 강 주변 마을들의 점령 소식을 크게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법원 출석 24시간前 마이애미 도착

### 폭력시위 우려 고조...경찰, 극우단체 시위대비 경계강화

불법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연방법원 출석을 하루 앞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지지층이 법원 주변에서 시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법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親)트럼프 인사들이 ‘보복’과 같은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지지층에 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일각에서는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과 같은 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

다는 우려도 나온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곳곳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출석할 예정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집결할 계획이다.

2021년 1월6일 의회에 난입한 혐의로 회원 다수가 기소된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의 현지 지부도 법원 앞 집회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법당국은 온라인에서 이들의 동태를 모니터링하며 극우단체와 친트럼프 집회 계획을 감시하고 경찰력을 보강하고 있다.

마이애미 경찰은 트럼프 출석 당일 최대 5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필요하면 주변 도로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출발하기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재선에 성공하면) 미 역사상 가장 부패한 조 바이

든과 바이든 일가의 범죄, 모든 선거와 국경,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데 연루된 모든 이들을 추적할 진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를 이용해 뉴저지를 출발해 오후 3시께 마이애미에 착륙했다. 법원 출석 꼭 24시간 전에 미리 도착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빌 골프클럽에서 변호인단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법원 심리를 마친 뒤 곧바로 뉴저지로 돌아가 임장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한미 “北, 추가 도발시 단호 대응”

### 북핵수석대표 혐의...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노력

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도발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북핵 수석대표 혐의를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김건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협의 뒤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이행 강화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버는 제가 취임한 후 역점을 갖고 추진한 분야”라며 “북한의 주 수입원으로 부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8월 한미 실무그룹을 출범시켰고 이런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수익 상당 부분을 동결·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내년에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더 이상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지 않도록 한미일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갈 것”이라며 “안보리에서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베이징을 다녀온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을 만나 방중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불링컨 장관이 방중하면 당연히 북핵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캐나다 수도 ‘K축제’에 1만5천명 운집

### 한복입고 K팝 댄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과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랜스다운 공원에서 한국문화 축제인 ‘K-페스트’(K-Fest)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관객 1만5천명 이상이 모여 한복을 입고 한국어 가사의 K팝 노래를 부르거나 안무를 따라했다고 문화원은 전했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해외문화홍보원과 문화원이 주관한 이

번 축제에서 K팝 그룹 ‘김담’이 캐나다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양국 국가를 불렀고, ‘김담’과 K팝 솔로 가수 권은비의 특별 공연도 펼쳐졌다.

관객들은 한복 대여와 전통음식 소개 부스에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아이돌 공연과 현지 K팝 커버댄스 팀의 무대에도 열광했다.

임응순 주캐나다 대사는 “이번 행사

가 한국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캐나다의 우정이 깊어질 뿐 아니라 캐나다의 문화 다양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마크 서트클리프 오타와 시장은 K-페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주간 행사가 개최되는 6월 9-15일을 오타와의 ‘코리아 위크’로 선포했다. /연합뉴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